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내일

# 부터 '봄꽃향연' 펼친다

5월 6일까지 38일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2019 순천만분의 해'를 맞아 봄맞이를 흥겹게 느낄 수 있는 '봄꽃향연'을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38일간 펼친다. 이번 순천만국가정원 봄꽃향연에서는 플립·유체·좌약·장미·철쭉 등 화려한 화훼 연출과 문화행사로 메인공연인 국가정원 뮤직서바이벌부터 코미디 서커스 쇼, 풍순이와 함께하는 꼬꼬마 DJ파티 등 젊음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부대공연까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입구에 들어서면 오색빛깔의 봄꽃이 드넓게 펼쳐져 겨우내 얼어붙었던 나들이객들의 마음을 녹인다.

봄바람에 실려 퍼지는 향긋한 꽃내음이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일상의

의 여유를 선사한다. 정미정원에 형형색색의 꽃으로 만든 '봄꽃드레스(드레스 가든)'는 이번 봄꽃 향연동안 꼭 찾아가야 할 핫플레이스다.

봄기운이 불쑥나는 근사한 드레스를 입고 나만의 인생사진을 남겨 보자.

경연대회 형식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국가정원 뮤직 서바이벌'은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 주말 16:00~17:00 동문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사전심사를 통해 3대의 경쟁팀을 선정된 2팀을 대상으로 하루에 2팀씩 관람객이 직접 판정단이 되어 당일 우승팀을 선정한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판정단 150명의 현장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진표는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한 라이브 중계도 하니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시청이 가능하다.

다양한 저글링 퍼포먼스와 마임이 어울어진 무연극 형태(난바벌퍼포먼스)의 공연 '코미디 쇼'는 봄꽃향연 기간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유명 아티스트 '팀퍼니스트' 특유의 코미디 진행력은 관람객에게 질세 없는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30일부터 주말 공휴일 1일 2회(14시, 17시)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잔디마당에서 30분간 진행된다.

어린이날 주간(5월4일~6일)에는 공순이와 함께하는 '꼬꼬마 DJ파티'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동요, 애니메이션 곡 등을 EDM 음악으로 편곡한 무대로, 어린이들의 숨은 끼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5월 4~6일 까지 3일간 15:00~16:00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잔디마당에서 진행된다.

국가정원운영과 최삼립 과장은 "여름하기 좋은 봄날, 연인·가족·친구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달콤하고 행복한 추억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내수면 수산자원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내수면 적정어업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조사·연구



광양시는 최근 섬진강과 동·서천 수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 및 어업실태 등을 조사·분석한 '내수면 수산자원 및 적정어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각 내수면어업계장을 비롯해 광양시 어민회장, 전남 동부수협 관계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내수면 수산자원 및 적정어업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전남대학

교 산학협력단(수산과학연구소)에서 착수해 각 수역별 수질 및 수산자원, 내수면 어업실태 현황 및 수요, 어업실태, 내수면 인허가 정수 및 관리방안 등을 조사·연구했고, 오는 4월 3일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양시는 섬진강을 인접한 하동군과 비교했을 때 허가·신고어업 정수의 차이로 인해 실제종사자를 조사하여 수산자원량에 따라 합법적인 어업행위가 이뤄지도록 건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 용역이 수면관리청과의 수면이용 협의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영수 청장항만과장은 "최근 하천의 생태환경변화로 인해 내수면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했는데 이번 연구용역으

로 수역별 수산자원량이 조사되어 체계적인 내수면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면관리청과 허가 정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중간 보고회를 토대로 섬진강 수면관리청인 익산청과 협의한 결과, 제철잡이 손틀어업 실제종사자 21명에게 조건부 허가증이 발급되었다.

이는 광양·하동 '섬진강 제철잡이 손틀어업'이 공중으로 국가중요 어업유산 제7호로 등재되는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져 영·호남 공생발전과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또 '섬진강 제철잡이 손틀어업'이 세계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 허석 순천시장, 민생 현장 본격 탐방

허석 순천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직접 해답을 찾기 위해 승주읍 중대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민생현장 소통행보에 나섰다.

허석시장은 최근 승주읍 중대마을 회관을 방문해 30여명의 주민들을 만나 마을 최대 현안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관련한 주민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중대마을 주민들은 지난 7일 개

최된 승주읍 시민과의 대화에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으로 인해 마을 조망권 등이 침해되었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허석 시장은 약속을 잊지 않고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물 높이 조정 등을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날 현장대화에 참석한 마을 주민은 "마을이 생긴 이래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성숙한 민주주의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끊임 없이 상호의 의견과 입장을 좁혀가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 아파트 단지, 천막 등 구석구석 골목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보성군, 2019년도 공모사업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보성군은 지난 27일 보성 청소년수련원에서 군청 계장급(6급) 공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공모사업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민선7기 김철우 군수의 주요 공약 사항을 추진하고,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시책 개발, 중앙부처 주관 공모·지원 사업 과제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SOC·공간구조 혁신 ▲주민 삶의 질 혁신 ▲특량반편 조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 활성화 ▲주민참여·자치행정 혁신 등 5개 시책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담 학습 촉진자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분야별로 배경과 분과별 주요 시책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책 관련 국내외 사례 발표, 보성군 시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사업 등에 대응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했

다. 또한, 개인 과제 발표, 분별별 주제 발표를 통해 보성군 발전 모델 청사진을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 과제를 선정하는 데에 중점을 모으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김철우 군수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보성군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계장급 공직자들이 실무적 리더로 거듭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훌륭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광양시 국도2호선 '세풍-중군' 개통

광양시는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가 마무리 되어 28일 오후 4시에 개통됐다고 밝혔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청장 김철홍)에서 시행한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는 시내 구간을 우회하는 총 연장 9.28km의 4차로 신설노선으로, 지난 2006년 6월 착공하여 3,2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로에는 터널 4개소와 교량 13개소, 입체교차로 3개소 등이 설치됐다.

특히 광양시천을 횡단하는 세풍

대교가 국내 최초로 곡선형 3주탑 사장교로 건설되고, 주탑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광양의 새로운 상징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광양 시가지 통과 시 잦은 신호체제로 상습 정체 구간이었으나 이번 세풍-중군 개통으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광양과 순천을 오갈 수 있어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설도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국도 2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10분 이상(25분→15분)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광양제철소 이용 차량의 신설구간 통행으로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접근성 향상으로 광양제철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봉구 도로시설팀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세풍-중군 구간과 급진말 개통 예정인 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가 모두 완공되면, 여수와 순천, 광양, 하동권과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황경석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점검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